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충돌할 때 반드시 거룩함을 택해야 한다.

성경말씀: 벰전1:14-17

베드로전서 대상: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의 주제: 고통과 고난(벰전2:21)  
베드로의 임무(요21):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구원 받았으나 로마 치하에서 고생하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6-7).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13).

그러면서 이전 정욕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한다(14-16).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일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면 된다(17).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대로 따라야 행복이 온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개인과 교회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

< >, 거룩함, 두려움, 하나님 설명

### 1.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모든 종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그분으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효과: 영원한 생명,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영육의 축복

부산 교회, 사랑침례교회, 오랫동안 고생하며 바른 교회를 해 보려고 여기에 모여 있다.

바른 교회를 하려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사영리를 보라. 교회의 간판을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반만 말한다. 진실의 반만 가지고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든 세상 사람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심판), 공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사살 사랑 하며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애완전이나 친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 2.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14-16)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의 정욕들을 따르지 말라. 헛된 말, 거짓말, 술 취하기, 음행, 비방,  
소문 퍼뜨리기, 파당,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롬12:2). 그리스도인의  
특징: 생각해야 한다.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슬프게 하는가?

15-16절: 14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거룩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온갖 종류의 행실 면에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16절은 구약성경의 핵심(레11:45)

레위기 구우너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해 버렸다.

신학 공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자존하심, 공의(거룩하심),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사랑, 전지전능, 영원...거룩함을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으로 여긴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요소이다.

즉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룩함의 의미: 분리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물과는 분리된 존재이다. 급이 다른 존재이다.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은 무한대이므로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가 된다.

이것이 거룩함의 정의이다.

그분은 생각, 계획, 행사, 품성, 권능 등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시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즉 인간이, 천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6, 천상의 모습(1):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영적 존재들

가장 가까운 존재들 중 하나 스타, 6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날고 2개로 발을 가렸다(2). 너무 거룩한 분이라 창조물은 영원토록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더러움을 상징하는 발을 가리고 있다. 그분 앞에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친다(3).

사랑, 사랑, 사랑이 아니다.

요한 계시록 3:8의 창조물도 동일한 외침,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성경 전체에서 holy(611, 43, 654)라는 말이 love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온다(400회).

이 외에도 judge, justice, sanctify 등 많은 단어들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서도 안 가르친다. 경박한 그리스도인 양산

나도 40세까지 이런 것을 잘 몰랐다. 20년 전에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신학원

조직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강해, 전율이 느껴졌다.

이사야의 반응을 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대로 나자빠지는 일이 생긴다(6:5).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까? 아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자세히 사6을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잠1:7)

예수님의 말씀: 마10:28,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지옥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히12:28-29).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합1:12-13, 12 거룩한 분, 13절 설명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

###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광진리 안에서 그분께 거룩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시29: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기존 성경: 거룩함을 입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번역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저속한 음악, 가사, 말, 입신, 방언 등을 버려야 한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할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교제 시간에, 가정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구분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

“교회 소풍을 가는데 소주 박스를 신고 간다.” “구역 모임 후 술자리, 노래방”

언행이 단정해야 한다.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 남녀가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성경을 꿰뚫고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며 성경 차트를 그리고 다니엘의 70이레 설명을 술술 하는 것이 성경 신자가 아니다.

성경 신자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언행이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30년 정도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다. 목사들을 보았다. 이들의 착각: 성경 신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럭크맨, 사무엘 김 등등

열심을 내서 세대주의,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독립침례교회 열변

그러나 삶이 엉망진창이다. 목사가 결혼을 세 번 한 사람도 있다. 처녀 여비서 성추행, 금고형  
교회 안에서 많은 종류의 비인격자들을 보았다.

협담, 일구이언, 거짓말, 자기 자랑, 파당, 극도로 안하무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기록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다 보니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다(고후5:10).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실 분  
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신 속죄 희생의 어린양, 사랑의 예수님

왜 그분이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신다. 그래서 대신 속죄 희생 제도 마련, 무죄한 짐승이 죽음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희생 예물로 오셔서 죄가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즉 하나님의 기록하심과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16)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을 강조하는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히12:14).

독립 교회 영혼의 자유, 사랑, 은혜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기차와 같다. 사랑과 자유의 엔진, 이 기차가 있기에 모든 것이 편하다. 어디든지 간다. 짐을  
실어 나른다. 경치를 본다. 쉰다. 그런데 이 기차가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반드시 레일 위에서 다녀야 한다. 그 레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모든 일이 질서 있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 복장, 행동, 교제.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와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부산 교회, 우리 교회, 신약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17)

17절에 답이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2년 전쯤에 온 나라가 조국이라는 사람의 비리 행적으로 난리, 조국의 부모, 형제, 아내, 아들 딸, 주변  
지인들의 각종 비리, 가족 사기단이라 불림, 그 많은 조작, 비리에도 전혀 사과하거나 사퇴하려 하지  
않는다. 위선자 중의 위선자,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위선의 극치를 보고 불평하고 지적만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가 죄를 지으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 우리의 행적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신다. 동기까지

불신자들 천년왕국 이후 희고 큰 왕좌 심판(계20:11-15), 신자들 그리스도의 심판석(고후5:10-11)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한다.

#### 두려움의 효과(17)

1.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행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가 자체가 살 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 박탈, 그래서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지켜주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살 길, 기독교인들이 살 길
2.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개인이 행복하게 변영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죽음(롬 15:4).
3.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교회도 성장한다(행9:31). 사랑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바르게 성장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예의 있게 대하게 된다. 교회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늘어난다, 교회 사역이 확장된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 과정,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교회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결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 일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보내야 한다. 교회를 거룩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